

“ADR 기구간의 협력 필요성 공감” - 「우리나라 ADR의 성과와 발전방향」 심포지엄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11월 30일 프레스센터 19층 대화홀에서 ‘우리나라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의 성과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간 국내에서 시행되어 온 ADR 제도의 성과와 향후 공동과제를 정리해봄으로써 ADR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ADR 기구간 교류·협력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김상수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했고, 김정택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서정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 장수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함윤식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 홍승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사회는 이민영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맡아 진행하였으며, 국내 주요 ADR 15개 기관을 비롯해 조정학회와 로스쿨, 각종 분쟁해결연구센터 등 ADR관련 학계, 그리고 법조계 등에서 전문가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수 교수는 ADR의 개선방안의 하나로 조정이나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조정안에 구속력이 발생하는 ‘편면적 중재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ADR기관의 조정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염규석 분쟁조정실장은 “조정결과에 대해 민사상 화해계약의 효력만 부여할 경우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조정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며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 위원장은 정리발언을 통해 “조정·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ADR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오늘 심포지엄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이러한 공감이 기초가 되어서 조정·중재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훌륭한 대체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 해결 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보통 ‘소송대체 분쟁 해결 제도’ 또는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를 의미한다.

〈정리 = 정책연구팀〉

언론  사람

12월호 주요 내용

- | | | |
|-------|--------|-----------------|
| 02 | 인터뷰 | 이동화 서울신문 대표이사 |
| 06-07 | 특집 | 2009 중재위 10대 뉴스 |
| 07 | 만화 | 언중유금 |
| 10 | 위원회 소식 |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손길 |

“선거기사 심의 모니터링 강화해야”

이동화 서울신문 대표이사

- 서울신문 정치부장, 논설위원, 편집국장, 주필 등 역임
-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현)
-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
(2002. 2.~ 7.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3. 12.~ 2003. 5.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이동화 서울신문 사장은 196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올해 4월 자신이 30년 넘게 일했던 신문사의 대표이사로 복귀한 베테랑 언론인이다.

지난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언론중재위원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이 사장에게 선거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다.〈편집자 주〉

■ 선거기사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후보자가 모 신문사의 기사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며 사과문 게재를 요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신문사가 언뜻 무리해 보이는 후보자의 요구를 너무 쉽게 수용하는 것을 보고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요구가 지나친 감이 있었고, 제가 신문사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결국 합의 사항은 지켜지지 못했고, 그 대리인은 신문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대리인이 회사의 정확한 입장을 숙지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 선거 관련 기사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언론이 유의해야 할 점은?

최근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줄었지만, 예전 일부 언론들은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작성하거나 때로는 특정 후보자와 유착되어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 언론에서 보이던 그런 유착관계를 가장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 유력 후보 위주의 보도관행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는데, 유력 후보가 있다면 기사 분량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보도 메커니즘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산술적인 잣대나 일반적인 보도원칙과는 좀 다를 수 있죠. 기사 분량만을 갖고 공정성 여부를 따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 현행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좀 더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위원으로 활동할 때 사과문 게재 명령이 양심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하여 실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권고적인 성격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언론사가 싫어하

는 조치를 취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제재가 있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언론사들이 훨씬 더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2월부터 다시 선거기사심의 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선거기사심의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선거기사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좀 더 강화해서 많은 보도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들이 부족하면 위반사항을 다 밝혀낼 수 없고, 언론사 입장에서도 ‘운이 나빠서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살아 오셨는데, 지난 인생을 회고해 본다면?**

얼마 전 수술을 앞두고 제 인생을 회고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자생활을 하면서 보람도 많았고 후회도 좀 있지만, 대체로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 **경영자로서 기본 철학이 있다면?**

나는 평소 직원들에게 ‘나를 써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최대한 써먹으라’고 말합니다. 취재나 영업 모두 사장이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죠. 실용적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뷰/ 권오근 팀장 사진/ 여운규 차장(이상 홍보팀)〉

이런얘기 저런얘기

산타클로스



▲ 성 니콜라스의 초상(좌)과 산타클로스

알려져 있다시피, 산타클로스의 원래 모델은 어린이와 선원들의 수호성인이었던 성 니콜라스(St. Nicholas)다. 4세기 초 터키 남동쪽 리시아에서 태어난 니콜라스는 미라 지방의 주교였으며,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소집된 제1회 니케아 종교회의에 중요 인물로 참석하기도 했고, 342년에 죽은 후 성인으로 시성되었다.

아이들을 좋아했던 그는 소년들의 후견인으로 일했는데, 몇백년 전 유럽인들이 상상했던 성 니콜라스는 기다란 주교복에 지팡이를 든 채 느릿느릿한 낙타를 타고서 그의 제삿날인 12월 6일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러 찾아왔다. 16세기, 성 니콜라스가 살았던 네덜란드의 아이들은 나막신을 난로 옆에 두고 잤다. 나막신 속에는 니콜라

스가 타고 오는 낙타를 위해 짚을 가득 채워 둔다. 그러면 니콜라스가 짚을 주어 고맙다며 선물을 양쪽 신발에 넣고 간다는 것이다.

성 니콜라스의 전설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금의 뉴욕 근처에 뉴암스테르담을 건설하면서 미국으로 전해졌다. 원래 네덜란드어로 성 니콜라스는 ‘신트 니콜라스’이고 이것이 신세계에 와서는 ‘산타클로스’라고 불려졌으며, 17세기에 네덜란드어가 미국에서 세력을 잃자 산타클로스는 영어화하여 산타클로스로 변했다.

겉모습은 어땠을까? 원래 늘씬하고 키 큰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는 신대륙에 와서 불에 살이 통통하게 찢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19세기 만화가 토머스 나스트는 한 잡지에 크리스마스 삽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가 그린 산타클로스는 통통하게 살찌고 흰 수염을 기른 모습이였다. 그러다가 1930년대 코카콜라의 판매량 만회를 위한 광고에서 오늘날 산타클로스의 모습이 완성된다. 최근 호주의 한 공중보전 전문가가 ‘똥똥한 산타는 비만을 기쁨과 안정 같은 긍정적 메시지로만 인식되게 할 수 있는 만큼 속히 다이어트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산타클로스가 다시 비쩍 마른 성 니콜라스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참고자료 : 찰스 패너티 저, 김대웅 편역 「배꼽티를 입은 문화」(1995)

“욕” 먹고 살지 뭐



정걸진 위원(대구중재부,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요즘 세간에서 유행하는 어느 대중가요의 노랫말에 “욕 안 먹고 살면 되는 거지”라는 가사가 있다. 세상을 살면서 욕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얼마나 욕을 안 먹고 살고 있는 것인지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는 욕을 먹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곤 한다.

“욕”은 잘못된 행위로 인해 생겨나는 비난이다. 사회생활의 규범을 어겨도 욕을 먹고, 법을 어겨도 욕을 먹는다. 규범과 법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약속을 어겨도 욕을 먹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해도 욕을 먹고, 의리를 저 버리고, 신뢰를 저 버려도 욕을 먹는다. 어쩌면 세상살이의 연속이 욕을 먹고 살게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욕을 먹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 어려운 것인가.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는 거의 모두가 욕을 먹을 사실들이니 세상에는 모두가 욕을 먹을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신문의 사회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건과 사고, 범죄관련 기사는 물론 정치면을 채우고 있는 많은 뉴스들도 세상에서 욕을 먹을 사실들로 가득 차 있다. 언론이 욕을 먹을 사실들을 보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욕을 먹을 짓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욕을 먹을 짓을 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욕을 먹을 일들이나 짓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언론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모두에게 공표된 큰 욕 짓거리라면 우리네 세상살이에서 보이지 않는 욕을 먹을 사실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인사를 잘못해도, 내게 주어진 일에 조그만 실수를 해도, 지하철이나 버스 안,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공중도덕을 잘 지키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조그만 불편을 끼쳐도 모두가 욕을 먹을 것들이다. 그러니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것이지 뭐”하고 생각을 해보아도 분명 “욕을 먹지 않고 살기”란 정말 어려운 과제 인 것 같다.

욕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욕”이란 말을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경상도 사투리에 자주 쓰이는 “욕 봤제”라는 말이 있다. 수고스럽고

힘든 일을 하고나면 경상도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다. 대가가 있든 없든 남들을 배려해 일을 하고,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한 그 노력에 따른 “욕”을 봤지만 그 “욕”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그러니 이런 욕은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

세상을 살면서 욕을 먹고 살더라도 감사의 욕을 먹고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언제, 어디에서든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실천, 남들을 배려하는 생각과 행동, 이기적인 생각이나 행동보다는 이타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욕”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욕을 먹고 살아도 괜찮다.

사람들은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 먹지 않으려는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욕이다. 이왕에 세상살이에서 욕을 먹으려면 “감사의 욕”을 먹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사에서 “욕”은 필연적으로 생겨난다. 세상사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좋은 뜻의 욕보다는 나쁜 의미의 욕이 더 많이 생겨난다. 어떻게 보면 이 욕을 먹지 않으려고 우리는 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나는 욕을 먹었으면 좋겠다. 나는 “아제 욕봤제”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세상살이 뭐 욕 안 먹고 살면 되는 거지라는 삶보다는 “아제 욕봤제”라는 욕을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서는 언제나 세상살이의 숙제다. 



적응에 필요한 시간, 한 달

이진아(조사팀)

아침 7시 45분, 경쾌한 휴대폰 알람소리에 피곤한 몸을 겨우 일으킨다. 첫 번째 알람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지 15분이 지났으니 이만 하면 괜찮은 성적이다. 대충 씻고 나온 후 습관적으로 PC점 TV 모니터를 향해 리모컨을 누른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하요-고자이마스(おはようございます)”로 시작하는, 다소 소란스러운 아침방송이 흘러나온다. 중후한 아저씨 기상캐스터가 전해주는 그날의 기상 정보에 맞춰 의상을 정하고 화장을 한 후 호텔 조식을 먹으러 내려간다.

일본 연수생활이 3주째에 접어들자 일본에서 맞이하는 아침도 서서히 ‘일상’이 되어갔다. 그동안 연수지가 주로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에 치우쳤던 터라 주위 사람들에게 연수 국가를 일본으로 정했다고 하자, ‘한 달이나 되는 긴 시간을 바로 코앞에서만 보내려고 하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에서부터 ‘연수지를 바로 이웃나라로 간다니 신선하다’는 동조의 목소리까지 반응이 다양했다.

출국하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일본 신문사의 서울지국장들과 접촉하기도 하고, 연고가 전혀 없던 일본 현지와 직접 어렵사리 연락을 시도하는 등 ‘맨땅에 헤딩’이나 다름없는 준비 과정을 거친 우리는, 신종 플루 탓에 공항마저 썰렁했던 11월 1일, 설렘 반, 우려 반으로 그렇게 일본 하네다행 비행기에 올랐다.

처음엔 모든 게 순탄치 않았다. 어마어마한 짐을 들고 하네다공항에서 도쿄 중심지로 들어가는 지하철티켓을 끊는 것에서부터, 일본어지

도를 보며 방문기관을 찾아가는 일까지, 익숙하지 않은 모든 것에 적응하기까지 늘 엄청난 긴장과 함께해야 했다. 예상 질문 및 인원 등을 확정해 늦어도 방문 3일 전까지 전달해야 하고, 약속시간보다 5~10분전에 미리 도착해 접수처에 도착했음을 알려야 할 만큼 모든 것이 정확하고 철저한 일본 비즈니스 사회로의 편입 역시 생각보다 수월치 않았다. 더욱이 하루하루 전쟁터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언론사 방문은 ‘방문’ 그 자체가 ‘폐’가 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홋카이도의 한 유력 일간지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언론사로서는 첫 방문지였고, 일본에 오기 전 서울 지국과의 친분도 쌓아둔 곳이었기 때문에 방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이게 웬일.

바쁜 와중에 ‘썸’을 내어 우리를 응대한 담당자는 우리 위원회에 대한 소개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국 언론에 대한 우월성과 한국 언론에 대한 폄하, 우리 위원회에 대한 경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방문 종료를 재촉하는 듯 연신 시계를 보는 것이었다. 잔뜩 준비해 간 질문에 성실히 답할 리도 만무했다. 통역을 위해 동행해 주신 한국인 교수님께 죄송할 만큼, 그야말로 ‘굴욕’이었다. 과연 앞으로 남아있는 언론사 방문에서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혹 ‘변지수’를 잘못 찾은 건 아닌지 하는 걱정 때문에 샛포로 대로(大路)한 복판에서 맞는 홋카이도의 바람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졌다.

하지만 초반부터 훈련을 단단히 받아서인지, 이후의 언론사 방문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일본 내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요미우리신문은 1시간 반으로 예정되어 있던 방문 시간을 훨씬 넘긴, 장장 3시간 동안 성실히 대응해주며 편집국 및 독자센터 등의 안내까지 해줬는가 하면, 규슈 지역의 유력 일간지인 니시닛폰신문에서는 편집국장을 비롯한 담당 부서 책임자들이 모두 자리를 함께해 솔직하고 성심성의껏 대응해주면서 외국인인 우리를 배려해 답변 속도를 조절해주는 친절을 베풀어줬다. 면담 후에는 규슈의 대표적 온천휴양지인 ‘유후인’에 꼭 가보라며 지역 홍보도 잊지 않았다.

‘한 달’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었다. 지하철 안에서 영어보다 일어안내방송이 더욱 친숙해졌고,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라도 하면 내가 먼저 ‘스미마센(すみません)’이라고 사과하게 됐으며, 지하철역에서 현지인들처럼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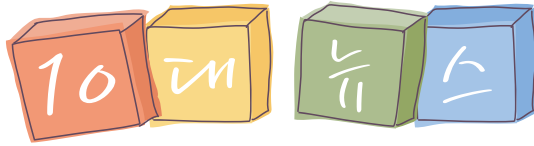
채로 ‘에끼소바(えきそば)’를 후루룩 넘기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어졌다.

대학 시절 그 흔한 유럽 배낭여행도 가보지 못한 내게 이번 한 달간의 일본 연수는 앞만 보고 달려온 내 삶의 크나큰 쉼표였다. 비록 ‘공무(公務)중’이었지만, 꼬박 한 달을 내가 보고 배우고 싶은 것 위주로 설계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인생에 다시없을 소중한 기회였다. 다행이다.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가슴 답답한 순간이 올 때마다, 콧잔등이 시큰했던 쌀쌀한 가을날 오후 유후인의 작은 호수 ‘킨린코(金鱗湖)’를 바라보며 마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커피와 부드러운 생크림 롤케익을 나누던 추억을 꺼내볼 수 있어서. 



▲ 오타루에서 필자

2009 언론중재위원회



1.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1월 1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중재위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기초를 제공했다. 2월 6일 공포되고 마침내 8월 7일 시행된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위원회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뉴스를 매개하는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닷컴 등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 중재부 증설, 사무처 조직개편



▲ 서울제7중재부 증설로 중재위원은 모두 85명으로 늘어났다.

개정 언론중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청 사건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서울제7중재부가 증설되었다. 서울제6중재부가 생긴지 약 4년만의 증설이다. 이로써 서울 7개, 지역 10개 중재부에 모두 85명의 중재위원이 활동하게 되었다. 한편 사무처도 개정 언론중재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3. 조정·중재신청 건수 최고치 경신



▲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기록들

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중재 사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적중했다. 12월 22일 현재 접수된 조정신청 청구 건수는 모두 1,552건으로 작년 총 건수 954건을 크게 넘어서 사상 최초로 1,500건을 돌파했다. 이 중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신청 사건은 180건을 기록했다. 한편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고들 말한다. 해마다 이때 즈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일게다. 언론중재위원회에게도 2009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숨가쁘게 걸어왔던 중재위원회의 2009년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작년 10건에 그쳤던 중재신청 처리건수도 크게 늘어 111건을 기록했다.

4. '루저 발언' 파동



▲ '루저 발언'으로 문제가 된 TV프로그램의 한 장면

한 해가 거의 저물어 갈 무렵, '루저 발언' 파동이 위원회를 강타했다. KBS 2TV 토크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에서 한 여성 출연자가 한 소위

'루저 발언'에 의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줄을 이었던 것. 11월 11일 한 남성이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12월 8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모두 265건에 이르렀다. 대부분이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인해 기각되었으나, 방송 발언의 파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5. 신임 중재위원 53명 위촉, 임원 선출



▲ 2009년도 임시총회

임기 만료된 중재위원들과 중재부 증설로 인해 신임 위원 53명이 9월 1일자로 위촉되었다. 이에 따라 중재위원회는 9월 7일 임시총회를 열고 임기 만료로 결원이 된 임원,

운영위원, 시정권고위원을 새롭게 선출했다. 그 결과 부위원장에는 윤구 위원(서울제4중재부), 이광재 위원(경기중재부)이 선출되었으며, 감사에는 정학철 위원(서울제7중재부), 심병연 위원(전북중재부)이 선출되었다.

6. 소식지 개편, 발행부수 늘려



▲ 제호와 내용구성을 새롭게 한 위원회 소식지

언론중재위원회 소식지가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전현직 중재위원 및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행되던 위원회 소식지 「PAC 뉴

스」를 대외 홍보매체로 전환하고 11월호부터 제호를 현재와 같은 「**언론** **사람**」으로 변경하여 발행부수를 월 600부에서 3,000부로 대폭 늘렸다. 12월호는 5,000부를 발행하여 전국에 무료로 배포하며, 내년부터는 언론중재위원회를 대표하는 홍보물로서 편집과 체제를 더욱 새롭게 개선한 소식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7. ADR 기구간의 연대 모색



▲ 심포지엄에 참석한 ADR 관련기구 인사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ADR) 기구로서 자리매김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국내 ADR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ADR 기구들간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5월 22일 열린 중재위원 워크숍에서 「ADR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ADR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을 시작으로 11월 30일 「우리나라 ADR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해 ADR 기구간의 연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1면 기사 참조)

8. 방송 캠페인 제작 방영



▲ TV 캠페인의 한 장면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을 알리고, 언론중재위원회 기능과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방송 캠페인이 제작 방영되었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제작된 이번 캠페인은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의심할 뻔 했으나, 언론중재위원회의 도움으로 오해를 풀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업광고가 아닌 40초 분량의 공익 캠페인으로 제작되었

으며, KBS 1TV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은 물론, 케이블 TV 및 라디오에 모두 217회 방영되었다.

9. 방글라데시 고위 공무원들 중재위 방문



▲ 방글라데시 공무원 방한단이 언론피해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귀한 외국 손님들이 다녀갔다. 국제교류증진협회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방글라데시 고위 공무원 방한단 일행 11명은 9월 1일 중재위원회를 방문하여 언론피해 구제 시스템과 조정·중재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쉬라프 호사인 방문단장(차관급)은 “방글라데시에도 언론평의회가 있지만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재위원회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10. 이주여성 지원센터에 언론피해 구제교육



▲ 교육을 경청하는 상담원들

언론중재위원회는 5월 15일 서울 종로구 송인동에 있는 이주여성 긴급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센터 팀장 및 상담원들에게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소외계층에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번 교육에서 이주여성 출신 상담원들이 생소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경청해 눈길을 끌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보도가 흥미 위주로 이루어져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추후보도, 손해배상

지난 호에서 살펴본 정정보도, 반론보도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청구는 추후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추후보도 청구는 언론에 의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을 통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자신의 결백을 보도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추후보도의 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지는 지난 ○월 ○일자 「A씨 음주운전」 제하의 기사에서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A씨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추후보도는 범죄혐의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보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일반적인 정정보도, 반론보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반해 추후보도 청구는 무죄 또는 무혐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무죄 또는 무혐의 처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 반론, 추후보도 뿐 아니라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도 피해 회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피해자는 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사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물론 원하지 않는 사진 촬영과 게재 등에 의해 초상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달에 들어온 책



신문 읽기의 혁명 2

손석춘 저 | 개마고원 | 280페이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손석춘 원장이 비판적 신문 읽기의 방법론을 대중적으로 풀어 쓴 <신문읽기의 혁명>이 1997년 출간된 이래, 12년 만에 후속편이 나왔다.

1권에서 ‘편지를 읽어야 기사가 보인다’고 설명했던 저자는 2권에서 ‘경제를 읽어야 정치가 보인다’고 강조한다. “1권을 쓸 때와 달리 정보기술 혁명이 독자들의 신문 읽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서문에서 밝힌 저자는 신문을 통해 경제를 바로 보기 위한 방법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이 책은 신문지면에서 경제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되짚어보며, 이를 통해 현재 다수의 독자들이 왜 정치-사회면을 나누어보게 되었는지, 경제면 아래 숨은 광고면의 참모습을 왜 또렷하게 인식하지 못했는지 등을 풍부한 사례를 들어 해설한다. 더불어 ‘주권시대의 신문 읽기’를 강조하며, 네티즌들의 자발적 글쓰기와 광고주 불매운동 등을 그 사례로 든다. 부패한 언론의 ‘의제 설정권’을 민중에게 가져오는 방법이 바로 주권시대의 신문 읽기라는 것이다.



세계를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노르베르트 볼츠 지음 | 한울아카데미 | 281페이지



뉴미디어의 시대에 사회와 인간의 새로운 자기이해를 모색하는 지침서.

‘세계 커뮤니케이션’은 현재 경제학이 ‘세계화’라고 하고 정치학이 ‘초국가화’라고 부르는 현상을 가리키는 미디어이론 개념이다. 세계커뮤니케이션의 시대는 더 이상 프로메테우스(생산)의 시대나 헤르메스(커뮤니케이션)의 시대다.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전달하는 정보나 그 과정에 참가하는 주체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뉴미디어 시대에 이루어지는 범세계적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지식사회의 문제점과 그 맹점, 인간과 철학, 미학과 종교의 주요 문제를 어떻게 ‘통섭적’으로 접근하여 인간과 사회의 자기이해를 위한 좌표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미덕은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뉴미디어의 세계와 트렌드들을 철학적·인문학의 정확한 개념과 잣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연구팀〉

‘마음 도둑’이 되자



송경근 강원중재부장(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필자는 아직 경력이 채 10개월도 되지 않은 새내기 중재위원이라 딱히 기억에 남는 조정사례는 없다. 다만,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법원의 조정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본질적으로는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필자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조정과 조정기법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아무리 훌륭한 판결도 조정만은 못하다.

조정과 대하여는, 판결에 비해 타협적인 해결에 치중함으로써 국민의 준법의식이나 정의감이 약화될 수 있고, 선량한 당사자의 양보를 통해 억지를 부리는 당사자가 이득을 볼 수도 있으며, 조정에 실패할 경우 이에 소요된 시간만큼 분쟁 해결이 오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등의 단점이 지적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조정은 일반적으로는 판결에 비해 분쟁을 신속히 종결시킬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며, 당사자들의 비밀과 의사 피력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탄력적이고 일회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며, 당사자 사이에 감정의 앙금을 줄일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위와 같이 조정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실패할 경우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일도양단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훌륭한 판결도 조정만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 도둑’이 되자.

조정과 기법에 관하여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다양한 이론과 방법을 소개하고 있지만, 분쟁은 서로 다른 개성과 배경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각 사건별로 형성되는 이해관계의 태양 역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분쟁에 활용될 수 있는 범용의 조정기법이란 존재하기 어렵다. 동일한 유형의 분쟁에서도 당사자가 다르다면 조정기법이 달라져야 하고,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도 상황에 따라 조정기법은 달라져야 하므로,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조정기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 조정실무에서는 조정자의 순발력, 임기응변, 발상의 전환 등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조정시 요구되는 자세와 기법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조정자는 사건의 내용, 쟁점, 입증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당사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당사자의 직업이나 성향 등에 관해서도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것이 조정과정에서 적절한 대응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이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자로서는 조정에 응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셋째, 당사자를 인격적으로 배려해야만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일방적 훈계는 오히려 반발 내지 불신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넷째, 중립적이고 냉정한 자세를 견지해야만 당사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다섯째, 당사자들이 자신의 정당성만을 강변하는 경우에는 조정자의 심증을 적절히 알려주는 것이 조정에 전향적인 자세를 갖도록 만들 수 있다.

여섯째, 상황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을 분리한 다음 의견 청취 및 설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 쌍방을 함께 앉혀 놓고 의견청취를 하다보면 불필요한 언쟁이 벌어져 조정이 어려워질 경우가 있고, 조정자의 심증을 개시함에 있어서도 그로 인해 유리한 쪽은 양보를 하지 않으려 하고 불리한 쪽은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거나 무조건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풍부한 아이디어와 분석력을 갖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재판으로 가면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그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크다는 점을, 명예나 체면을 중시하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자존심을 적절히 세워주면서 재판으로 가면 명예나 체면이 오히려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각 강조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다면 조정의 성공률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마음 도둑’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한다. 이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여 그 마음을 훔치자”는 뜻이라고 한다. 결국 조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마음을 잘 읽고, 그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손길 - 위원회 임직원 봉사활동 줄이어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중재위원 및 사무처 직원들의 봉사활동이 줄을 잇고 있다. 권성 위원장은 16일 서울 공릉동 소재 「공릉 새터민 정착 지원센터」를 방문, 성금을 전달하고 탈북주민들과 그 자녀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사진 1) 권 위원장은 그 자리에 참석한 새터민들의 어려웠던 탈북과정과 서울에서의 생활 등을 듣고,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새터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대구 중재부 장익현 위원(대구지방법변호사회 회장)도 16일 대구 두

류공원내 '사랑의 무료급식소'에서 대구지방법변호사회 회원들과 함께 급식 봉사활동을 했다.(사진 2)

사무처 직원들도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적극 동참했다. 언론중재위원회 노동조합(위원장 최승민)은 19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갖고 위원회 임직원이 기증한 물품들을 판매하는 봉사활동을 했다.(사진 3) 노조는 행사에 앞서 한 다문화 가정에 기부금도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정희 조사관은 "이렇게 쉽고도 즐거운 방식으로 어려운 다문화 가정 어린이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이 기뻐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 사무처 내 봉사 동호회 '코이노니아' 회원들도 12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치매노인 요양시설인 '샘터마을'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사진 4)



〈사진 1〉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노유환 관장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권성 위원장(왼쪽)



〈사진 2〉 급식 봉사활동중인 장익현 위원(가운데)



〈사진 3〉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무처 직원들



〈사진 4〉 샘터마을 봉사활동에 나선 '코이노니아' 회원들

하반기 위원 업무회의 개최

서울중재부는 18일 송년회를 겸한 하반기 업무회의를 열어 2009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각 지역 중재부에서도 계획에 맞춰 중재부별로 업무회의를 개최했다.

2009 이용만족도 조사보고서 발간

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재 및 상담, 교육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담은 2009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보고서가 16일 발간되었다. 또 계간 「언론중재」 겨울호(통권113호)가 30일 발간된다.

사무처 인사(2010. 1. 1.자)

〈승진〉 △운영본부 총무팀장 류석창 △심리본부 기사심의팀 차장 최승민

〈전보〉 △심리본부 기사심의팀장 강현석 △운영본부 예산회계팀 차장 조준원 △부산사무소장 황정근 △전북사무소장 임종우 △경남사무소장 직무대리 장성원

● 조정 · 중재신청 처리현황

위원회는 2009년 11월까지 모두 1,441건의 조정사건을 접수 · 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478건, 조정결정 89건(동의 55건, 이의 34건), 조정불성립결정 77건, 기각 249건, 각하 10건, 취하 538건이며, 피해구제율은 76.0%를 나타냈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신문이 5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 445건, 인터넷신문 200건, 인터넷뉴스서비스 155건, 잡지 26건, 뉴스통신 38건, 기타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는 11월말까지 65건의 중재결정과 46건의 중재화해결정을 내렸다. 청구권별로는 정정청구가 61건, 반론청구 25건, 추후청구 7건, 손배청구 18건으로 나타났다.

조정 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별	청구명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1~11월	정정	630	258	40	18	43	15	2	254(180)	78.0
	반론	122	60	2	4	3	4	1	48(37)	84.6
	추후	41	13			2		1	25(24)	92.5
	손배	648	147	13	12	29	230	6	211(124)	68.9
합 계		1,441	478	55	34	77	249	10	538(365)	76.0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피해구제율=피해구제건수/조정건수

※피해구제건수 = 조정성립건수 + 조정결정 중 동의 + 조정결정 중 이의 · 조정불성립결정 · 취하 중 정정 또는 반론기사 등이 이루어진 건수

중재 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별	청구명	청구 건수	처리결과	
			중재 결정	중재 화해 결정
1~11월	정정	61	30	31
	반론	25	20	5
	추후	7	3	4
	손배	18	12	6
계		111	65	46

●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12월 14일에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언론보도를 자체 심의하여 총 14건의 법익침해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은 피의자 신원공개 10건, 피해자 신원공개 1건, 자살보도 3건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 1건, 지역일간지 5건, 뉴스통신 1건, 인터넷 신문 7건이다.

● 상담 현황

위원회는 2009년 11월 한 달 동안 504건을 상담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4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적절차 안내가 5건, ▲재상담 예정 6건, ▲타기관 안내가 44건, ▲자체종결 3건, ▲기타 안내가 13건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을 살펴보면 일간신문 68건, 주간신문 19건, 방송 343건, 뉴스통신 12 인터넷 신문 65건, 인터넷뉴스서비스 78건 순으로 나타났다.

● 교육 현황

위원회는 11월 3일 육군종합학교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11월 한 달 동안 14차례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대상기관별로 보면 대학 6건, 공사기업 4건, 언론사 3건, 기타 1건 등이다.



전현직 위원장 간담회

권성 위원장은 15일 프레스센터 20층 무궁화홀에서 임규운(76, 변호사), 김두현(83, 변호사), 박영식(68, 변호사), 조준희(71, 변호사) 전 위원장과 간담을 갖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 왼쪽부터 권성 위원장, 임규운, 김두현, 조준희, 박영식 전 위원장)



“지역언론 역할에 대한 제고” 세미나 발제

최낙진 위원(제주중재부,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 사진 맨 오른쪽)은 11월 27일 제주대 법정대학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언론 역할에 대한 제고” 세미나(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개최)에서 발제를 했다.



성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 협약식

정상용 위원(서울제2중재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 사진 맨 오른쪽)은 16일 여성부 대회의실에서 대

한변협과 여성부의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협약식’에 참석했다.



경기중재부 위원 경기방송 방문

경기중재부(중재부장 신용석 수원지법 부장판사) 소속 중재위원들은 11월 26일 경기방송을 방문해 방송사 시스템을 견학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동아방송 강제 폐방 29년” 행사 참석

정학철 위원(서울제7중재부, 前 동아일보 편집위원)은 11월 30일 동아방송 기자 출신 방송인들의 모임인 동송회가 주최한 “동아방송 강제 폐방 29년” 행사에 참석했다.



“여수 세계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대회” 참석

최범서 위원(전북중재부,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조직위 감사)은 11월 26일 진남실내체육관 특설무대에서 열린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기념식 및 시민결의대회”(여수시 개최)에 참석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안내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포털, 언론사 닷컴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등

■ 신청절차

① 신청기간

조정·중재의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는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②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지방자치단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방법

- 신청서를 직접 작성 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신청서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것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메일,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등 전자문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 02)397-3000, 3010, 3100

e-mail counsel@pac.or.kr

홈페이지 www.pac.or.kr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100-750)

